

# 제주도 방언에 나타난 말[馬] 관련 어휘 연구\*

## -부분 명칭을 대상으로

김 순 자\*\*

### 〈차 례〉

1. 서론
2. 제주도 방언의 말 부분 명칭 관련 어휘
  - 2.1. 어휘에 대한 해설
  - 2.2. 사전에서의 처리
3.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제주도 방언에 나타난 말[馬] 부분 명칭과 관련 어휘를 어휘 의미론적으로 고찰하고, 그 의미를 현지 조사 자료와 국어사전, 그리고 방언사전 등을 참고해서 새롭게 규명하였다. 논의 대상으로 삼은 어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지역에서 말[馬] 문화 관련 어휘를 조사하며 수집한 말 부분 명칭 가운데 특이 어휘 33개다.

논의 결과, 33개의 어휘 가운데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는 어휘는 ‘갈기, 물총, 접, 전각, 후각, 비피’ 6개였고, 방언사전에는 ‘갈기, 물갈기, 물총, 물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B5A07042703). 원고를 꼼꼼히 읽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제주대학교 시간강사 / sj4765@hanmail.net

꿀랭이, 검은지름’ 등 12개 어휘가 올라 있다. ‘멘털(멩털), 밀총지, 밀팡, 밀빼, 밀밭, 종지밭, 대접밭, ㄹ는베설, 밀지름, 밀간, ㄹ른세’ 등 21개는 국어사전과 방언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다.

이는 그동안 말 관련 어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논의 대상 어휘에 대응하는 표준어형이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거나 올림말로 소개된 어휘 가운데도 수정 또는 보완 작업이 필요한 뜻풀이가 있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앞으로 사전 작업을 할 때 문헌 조사 못지않게 현지 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논의 어휘에 대한 뜻풀이와 용례는 향후 사전 작업 때 귀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 1. 서론

이 글은 제주도방언에 나타난 말[馬] 부분 명칭 등 관련 어휘를 어휘 의미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관련 어휘의 뜻풀이와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의 뜻풀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어휘 의미론은 어휘 항목이 갖는 의미를 뜻한다.

논의 대상 어휘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sup>1)</sup>에서 채록한 어휘 가운데 33개다.<sup>2)</sup> ‘멘털/멩털, 앞머리털, 갈기/갈귀, 밀갈기, 밀총, 밀총지, 밀꿀랑지, 밀꿀랭이’ 등 털 관련 어휘 10개, ‘밀팡, 밀빼, 접’ 등 뼈 관련 어휘 3개, ‘밀밭, 종지

1) 가시리는 조선시대 국마장인 ‘갑마장’이 있었던 목축 산지다. 이 마을에는 다른 지역보다 말 문화 관련 어휘가 풍부하게 남아 있다. 표선면 전체 면적의 42%에 달할 정도로 드넓은 대지를 품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1,191명(남자 633명, 여자 558명)의 주민 가운데 20여 명이 마을공동목장을 운영하며 소와 말을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전래적인 방법으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은 2~3명에 불과하다.

2) 필자는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제주도 말[馬] 문화 관련 어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2014년 9·10월 문헌 조사, 2014년 10월~2015년 5월까지 7차례의 현지 조사와 예비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민족지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제보자는 이 마을에서 말을 키웠던 오국현(1934년생)과 고창효(1937년생)다.

발, 대접발' 등 발 관련 어휘 3개, '물레기/물고기/물코기, 물가족/물커족, 검은지름/물검은지름/술진베설/큰베설, ㄴ는베설, 물지름, 물간, 전각, 후각(술), 비피, 북부기' 등 부위 관련 어휘 13개, 그외로 'ㄱ른세'라는 기타 어휘 1개다.

이들 어휘 가운데는 국어사전이나 방언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도 있어 말 관련 부분 명칭과 관련한 새 어휘를 학계에 보고하는 부차적인 목적도 있다. 또 뜻풀이가 잘못되거나 보완해야 할 어휘들도 있다. 따라서 어휘 논의는 『표준국어대사전』 등 국어사전과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등 방언사전, 그리고 고어사전과 체보자들의 인상적인 특징 등을 담아낸 용례 등을 참고하였다.<sup>3)</sup>

그동안 말 문화 관련 연구는 주로 역사적·자연과학적 논의와 축산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언어 민속학적인 측면에서는 말 이름과 말 이용 측면에서 다뤄졌을 뿐이다.<sup>4)</sup> 말의 부분 명칭은 사전과 민속 분야 연구에서 간략하게 소개된 경우는 있었지만 국어학적으로 관련 어휘를 본격적으로 다룬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러다 보니 말 관련 부분 명칭이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거나 뜻풀이가 잘못되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어휘 해설은 체보자들의 삶과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하였다.

3) 논의 과정에서 참고한 사전은 다음과 같다. •국어사전: 이희승(1961/198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이하 『국어』).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이하 『우리』). 북한사회과학원(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이하 『조선』). 국립국어연구소(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이하 『표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하 『한국』). •고어사전: 유창돈(1964/197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이하 유창돈). 남광우(1999/2008), 『고어사전』, 교학사(이하 남광우).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4(옛말과 이두)(이하 『우리 4』). •방언사전: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이하 석주명). 박용후(1960/1988), 『제주도방언연구』, 동원사/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이하 박용후).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이하 현평효). 현평효 외 1(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이하 현평효 외 1).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이하 송상조). 현평효 외 2(2009),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현평효 외 2).

4) 말 문화와 관련한 어휘 조사와 연구는 이기만(1971)과 이기문(1964, 1985, 1991), 강영봉(1991), 남도영(2001/2003), 고광민(2004) 등이 있다. 또한 석주명(1947), 박용후(1961/1988), 현평효(1962) 등에서도 말 이름을 고찰하였다. 강민수(1998, 1999, 2005)와 장덕지(2007), 김순자(2015) 등도 참고할 만하다.

## 2. 제주도 방언의 말 부분 명칭 관련 어휘

말은 크게 머리, 목, 몸통, 앞다리, 뒷다리 등 크게 다섯 부위로 나눈다. 축산 분야 제주마(濟州馬) 연구자들은 말의 명칭을 머리부, 목부, 몸통부, 앞다리부, 뒷다리부<sup>5)</sup>로 나누고 각 부위를 52개 부분<sup>6)</sup>으로 세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축업을 하는 축산업자들은 연구자들과는 달리 말 부위를 크게 세분하지는 않는다.

이 글에서는 털 관련 어휘, 뼈 관련 어휘, 발 관련 어휘, 부위 관련 어휘, 기타 어휘 등 5개 범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부위 관련 어휘’의 ‘부위’는 말을 도축했을 때 생성된 부위 명칭을 가리킨다.

5) 이들 명칭은 이기만의 「체표부위」, 『馬와 乘馬』(향문사, 1994), 강민수의 「제주조랑말」, 『在來家畜의 遺傳的 特性』(제주대출판부, 1998), 장덕지·조승철의 『馬의 理解』(늘, 1998)를 토대로 작성한 남도영(2001)의 『濟州島 牧場史』(마문화연구총서 5, 한국마사회마사박물관) 94~97쪽에서 재인용하여 연구자가 다시 정리하였다. 설명 가운데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은 부분은 정리 과정에서 바로잡았다.

6) 1)머리부(頭部) (1) 뒤통수(occiput poll: 정수리, 頭部) (2) 이마(\*forehead: 앞머리가 늘어져 있는 곳, 양 눈 위쪽 부분: 顔面) (3) 귀(ear: 耳) (4) 눈(eye: 目) (5)안면(face: 얼굴, 顔面) (6) 볼(cheek: 뺨, 頰) (7) 코(nose: 鼻) (8) 콧구멍(nostril: 鼻孔) (9) 입(mouth: 口) (10) 턱(chin: 顎) 2) 목부(頸部) (11) 목덜미(nape, crest) (12) 멍(throat: 목구멍, 咽喉) (13) 갈기(mane: 鬃) (14) 목(neck: 頸) (15) 밀가슴(chest \*floor: 胸底) (16) 경구(jugular groove: \*頸溝) 3) 몸통부(軀幹部) (17)돛등마루(withers: 鬐甲) (18) 등(back: 背) (19) 가슴(chest: 胸) (20) 옆가슴(costal region: 胸部) (21) 허리(loin: 腰) (22) 허구리(flack: 脇) (23) 허구리오목(paralumber fossa) (24) 배(belly, abdomen: 腹) 4) 앞다리부(前肢部) (25) 어깨(shoulder: 肩) (26) 어깨 끝(shoulder point: 肩端) (27) 상완(arm: 上腕, 上膊(upper arm) (28) 전완(forearm: 前腕) (29) 앞다리꿈치(팔꿈치: elbow 肘) (30) 앞무릎(knee: 前膝) (31) 앞대롱(fore cannon: 前管部) (32) 맺음목(fetlock: 球節, \*距節) (33) 발굽갓(coronet: \*蹄冠) (34) 발굽(hoof: \*蹄) (35) 밤눈(chestnut, nighteye: 夜目, 角栗) 5) 뒷다리부(後肢部) 36) 허리턱(point of hip: 腰角) 37) 엉덩이(hip: 尻) 38) 궁둥이(buttock: \*臀) 39) 둔부(\*buttock quarter: 臀部) 40) 넓적다리(\*thigh: 大腿部) 41) 무릎(stifle: 後膝) 42) 하퇴(gaskin: 下腿) 43) 뒷발목꿈치(hock: 飛節) 44) 뒤대롱(hind cannon: 後部) 45) 거모(feater: fetlock: 踞毛) 46) 발목(pastern: \*繫部) 47) 비구(飛溝) 48) 비강(hamstring: 飛綱) 49) 꼬리부리(tail root: 尾根) 50) 꼬리(tail: 馬尾) 51) 건(back tendon sinew: 腱) 52) 포피(prepuke: 包皮)

## 2.1. 어휘에 대한 해설

### 2.1.1. 털 관련 어휘

가시리에서는 ‘털’을 ‘깎’ 또는 ‘털’이라고 한다. 제보자들은, 얼굴에 나 있는 털을 ‘멘털·멩털[面-]’, 목덜미에 난 털은 ‘갈귀’, 꼬리털을 ‘물총’이라고 하여 부위에 따라 털의 명칭을 구분하고 있다.

#### 2.1.1.1. 멘털(멩털), 머리털, 앞머리털

‘멩털, 멘털’은 말의 이마에서 내려온 털을 말한다. ‘멩·멘[面]+털’ 구성으로, 말의 이마 부분에 달린 털이어서 ‘머리털’ 또는 ‘앞머리털’이라고 한다.

- (1) 가. 멩털 저 마뻑에 덮어지는 건 멩털. 요 야가지만 가는 거는 저 갈귀. 앞에 거 머리에는 멘털.(‘멩털’ 저 이마에 덮어지는 것은 ‘멩털’. 요 모가지만 가는 것은 저 갈귀. 앞에 거 머리에는 ‘멘털’)<오국현>  
 나. 갈귀. 물갈기. 물골랑지, 물총지. 귀 양 설미 양쪽이 머리털, 물 앞머리털, 그 머리털이 멩털이라.(갈귀. 말갈기. 말꼬리, 말꼬리. 귀 양 사이 양쪽 이 머리털, 말 앞머리털, 그 머리털이 ‘멩털’이야.)<고창효>

예문 (1 가)에서 보듯이 ‘멘털(멩털)’과 ‘물 앞머리털’은 얼굴에 난 털로써,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은 물론 『표준』 등에도 올라 있지 않은 미등재 어휘다. 사전에는 ‘머리에 난 털’이라고 하여 ‘머리털’이 올라 있다.

#### 2.1.1.2. (물)갈기, 갈귀, 갈귀 비다

‘갈기’는 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을 말한다. 달리 ‘말갈기’라는 의미로 ‘물갈기’라고 한다. 『표준』을 보면, ‘갈기’는 ‘말이나 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 ≍갈기털.’이라고 되어 있고, ‘말갈기’는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나는 긴 털. ≍마렵(馬鬣)’으로 풀이하고 있다.

‘갈기’는 제보자에 따라 ‘갈귀’로도 실현된다. ‘갈기’는 『월인석보』(2:46)의 “마리 샷기를 나흔니 … 갈기 다 구스리 빼여 잇더니” 등에 보이는 ‘갈기’와 『역어유해』의 ‘물갈기’(下:30)가 오늘날까지 방언형으로 남아 있는 어휘다.

- (2) ㄱ. 개난 총 **갈귀 비여블렌** 허주. 저 목장디레 올리젠 허면은 거 비여똥 올리 주. 그디 뇌두민 도둑 오랑 문 **비여기불어**. 몰 그냥 녹져 낱. 바로 억지주. 총 영 심영 호미로 그차오고 그차오곡. **갈귀**는 연년이 크지 아녕 말아도 총은 두 해에 한 번도 비고. 총 좋은 거는 돈도 하영 받주마는, 거 입제 탕건 멘드는 디 강 풀아살 거난 좋은 거.(그러니까 총 갈기 베어버리라고 하지. 저 목장으로 올리려고 하면 거 베어두고 올리지. 거기 뇌두면 도둑 와서 몽땅 베어가버려. 말 그냥 눅혀 놓아서. 바로 억지지. 총 이렇게 잡아서 낫으로 끊어오고 끊어오고. 갈기는 연년이 크지 않아서 말아도 총은 두 해에 한 번도 베고. 총 좋은 것은 돈도 많이 받지만, 저 입자 탕건 만드는 데 가서 팔아야 할 것이니까 좋은 거.)<오국현>
- ㄴ. 나 언제 밧더레 몰덜 올리커메. 몽생이 총이영 **갈기영** 민 **비여부커라**. 씨원허곡 가시덤불 그든 디도 걸리도 안 허곡.(내 언제 밧으로 말들 올리 겠어. 땅아지 총이랑 갈기랑 몽땅 베어버리겠어. 시원하고 가시덤불 같 은 데도 걸리지 안 하고.)<고창효>

예문 (2 ㄱ, ㄴ)을 보면 ‘갈기’는 봄에 말을 목장에 놓아기르기 전에 벤다. 가 시리에서는 일 년 또는 이년에 한 차례 갈기를 벤다고 한다. ‘갈기’를 자를 때에는 말을 눅혀 ‘호미(낫)’로 베는데, 이런 일을 일컬어 ‘갈귀 비다’라고 한다. ‘비다’는 ‘베다’의 방언형으로, 『구급간이방』(6:46)의 “가히 터리를 뷔여 브티라: 翦狗毛傅之”, 『박통사언해』(上48)의 “거두어 비면 八月 初生에 기동홀러라”와 『역어유해』(下:8)의 “割穀子 곡식 비다” 등의 문헌어 ‘뷔다’와 ‘비다’가 방언형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비다’는 ‘비다>비다’ 또는 ‘뷔다>비다’의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며, ‘비다’ 대신에 ‘그치다’로 표현하기도 한다. ‘비다’와 ‘그치다’는 『표준』 등에 나타나지 않은 방언형이다.

예문 (2 ㄱ)을 보면, ‘갈기’로는 ‘입제[筥子]’를 만들 때 사용된다. 또 탕건, ‘말마음식’ 등의 재료로 활용된다. ‘입제’는 ‘갯’의 한자어인 ‘입자(筥子)’를 말하고, ‘말마음식’은 ‘말의 마함에 달린 고삐’라는 뜻이다. 따라서 ‘갈기’의 뜻풀이에 ‘말의 목덜미에 난 긴 털. 갯이나 탕건 등의 재료로 활용된다.’처럼 문화적인 요소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다.

### 2.1.1.3. **똥총, 총, 똥총지, 똥풀랑지, (똥)풀랭이**

‘똥총’은 말의 꼬리털을 말한다. 『박통사언해』(中:12)와 『역어유해』(下:13)의

‘馬尾羅兒 물총채’, 『동문유해』(下:37)의 ‘馬尾子 물총’이 방언형에 남아 있는 경우다. 표준어 ‘말총’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표준』을 비롯한 국어사전의 ‘말총’의 뜻풀이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은 조선독총부가 펴낸 《조선어사전》(1920:297)의 “말의 갈기와 꼬리의 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ㄱ. 옛날은 **물총**이나 물갈기 옛장시털 오란 받아갑디다.(옛날은 말총이나 말갈기 옛장수들 와서 받아갑디다.)<고창효>

ㄴ. **플랭이**는 이 함덕 어디레 가민 지금도 준다 입제 탕건 해가지고. 그거 용으로 대개 사가났고. 갈귀는 뭐 용으로 사가는지 모르는데, 그때 갈귀도 돈을 하영 쥘 사가났는디 이제는 총도 안 사가고 갈귀도 안 사가고.(꼬리는 이 함덕 어디로 가민 지금도 곁는데 입자 탕건 해가지고. 그거 용으로 대개 사 갔었고. 갈기는 뭐 용으로 사가는지 모르는데, 그때 갈기도 돈을 많이 주고 사갔었는데 이제는 총도 안 사가고 갈기도 안 사가고.)<오국현>

예문 (1 ㄴ)과 (예문 3)을 보면, 제보자들은 말의 털을 ‘갈귀, 물총, 덴털’로 구분하고 있다. 『동문유해』(下 37)의 ‘馬尾子 물총’을 보면, ‘물총’은 ‘말의 꼬리털’임을 알 수 있다. ‘물총’은 달리 ‘물총지’, ‘물플랑지’, ‘(물)플랭이’로 나타난다. 이 변이형들은 ‘물총지’와 ‘물플랑지, (물)플랭이’로 구분되는데 ‘물총지’는 ‘물+총지’, ‘물플랑지’와 ‘(물)플랭이’는 ‘물플리+ -앙지, (물)플리+ -앵이’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 어원을 달리한다. 즉 ‘총지’와 ‘플랑지/플랭이’는 ‘꼬리의 긴 털’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그러나 『표준』에는 ‘총’을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풀이하여 ‘말총’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표준』에 북한어로 소개된 ‘소총(쇠꼬리의 긴 털)’을 보더라도 ‘꼬리의 긴 털’을 의미하는 ‘총’과 말의 꼬리털인 ‘말총’과는 구분해야 한다. 즉, ‘말총’은 ‘말의 꼬리털’, ‘소총’은 ‘소의 꼬리털’이어야 한다. 이는 이른 시기의 사전인 『한불사전』(1880:230)의 “물총 馬尾 crin de la queue du cheval.”(말의 꼬리에 난 꼬리털)과 『한영사전』(1897:316)의 “물총 馬尾 horse hair-from the tail.”(말의 꼬리털)이라는 풀이와 예문 (4)에서도 확인이 된다. 유창돈(1974:291)의 『이조어사전』에도 ‘물총’을 말총(말 꼬리털)으로 풀이하고 있다.

7) ‘총지’는 『표준』에 울림말로 올라 있지 않고, ‘플랑지’는 ‘꼬리’의 전남 방언으로 풀이하고 있다.

- (4) 총모자는 보통 ‘말총’(말의 꼬리털)을 이용했다. 그러나 ‘쉐’(소) 꼬리털, 즉, ‘쉐총’으로 결은 총모자도 있었는데, ‘쉐총’으로 결은 총모자는 한산모시마냥 고운 것도 있었다고 한다.<sup>8)</sup>

예문 (4)를 보면, 총모자<sup>9)</sup>를 결을 때 기능보유자들은 ‘말총’과 ‘쉐총’을 구분하고 있다.<sup>10)</sup> 따라서 『표준』의 ‘총’은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 대신에 ‘동물의 긴 꼬리털’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말총’은 예문 (3 ㄴ)에서 알 수 있듯이 갓모자나 탕건, 망건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또 ‘말총’은 꼬아서 드린 ‘총베’와 가루 따위를 치는 데 소용되는 ‘총체’의 재료가 되었다. 따라서 ‘말총’은 돈을 받고 팔았기에 예문 (2 ㄱ)처럼 “게난 총, 갈귀 비여 불렌 허주. 저 목장디레 올리젠 허면은 거 비여똥 올리주. 그디 놔두민 도독 오락 민 비여가불어.”라고 구술한 것이다.

## 2.1.2. 뺨 관련 어휘

### 2.1.2.1. 뭇짱, 뭇뺨

‘뭇짱’은 ‘뭇+짱’, ‘뭇뺨’는 ‘뭇+뺨’ 구성으로, ‘뭇’은 ‘말’, ‘짱’과 ‘뺨’는 ‘뺨’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따라서 ‘뭇짱’과 ‘뭇뺨’는 말의 뺨를 뜻하는데, 두 어휘는 어원을 달리하고 있다.

- (5) 뭇짱은 사람 병에 좋아. 그 뭇뺨 뭇 모양으로 뺨도 아니 아프곡 잘 돌아진덴 허난.(말뺨는 사람 병에 좋아. 그 말뺨 말 모양으로 뺨도 아니 아프고 잘 달린다고 하니까.)<고창효>

‘소뺨’가 『표준』 등에 올림말로 올라 있는 것과 달리 ‘뭇짱’과 표준어형 ‘말뺨’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8) 김순자(2006), 『제주의 삶과 문화를 잇는 사람들-와치와 바치』, 도서출판 각, 20쪽.  
 예문 (4)의 ‘말총’과 ‘쉐총’은 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총모자) 기능보유자인 김인으로 부터 수집한 어휘다.  
 9) ‘총모자’는 갓의 모자 부문을 일컫는다. 총모자는 말총으로 주로 결는데, 현재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되어 제주에서 전승, 보전되고 있다.  
 10) 『표준』에 ‘소총’을 북한어로 설명한 것 또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2.1.2.2. 접

‘접’은 ‘주걱처럼 생긴, 마소의 어깃죽지의 뼈’를 말한다. 표준어 ‘주걱뼈’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6) 저 갈퀴 돋은 달로 앞드레 혼 뺨 정도는 **접**이렌 허여. 게난 **접**에 부뜨난에 다리가 절아근에 **접빠진돌**, **접빠진돌**. **접**이 빠져불민 그디가 잘 걷지도 못허 곡 그디가 뜨나불어.(저 갈기 돋은 데로 앞으로 한 뺨 정도는 주걱뼈라고 해. 그러니까 주걱뼈에 붙으니까 다리가 절어서 ‘접빠진돌’, ‘접빠진돌’. 주걱뼈가 빠져버리면 거기가 잘 걷지도 못하고 거기가 달라버려.)<오국현>

예문 (6)을 보면, ‘접’이 빠진 말은 정상적으로 걷지 못한다. 그런 말을 두고 제보자들은 ‘접빠진돌’ 또는 ‘접수기’라고 하였다.

## 2.1.3. 발 관련 어휘

### 2.1.3.1. 돌발

‘돌발’은 말의 발을 말한다.

- (7) **돌발**이엔 헤여근에 **돌발**도 이름이 **종지발**, **대접발** 영 허는디 **종지발** 가진 돌이 발이 영 좁으난 닝끼리지 안헌디, 이만이 큰 발 가진 건 눈이 오나 뒤흔 때 닝끄림을 잘허여. **종지발**은 동글락헌 게 짚어. 이거보다 지프니까 땅 폭 폭 들어강 닝끼리지 아녀는디 **대접발**은 넓고 평탄이라부난 잘 닝끄려.(말발이라고 해서 말발도 이름이 ‘종지발’, ‘대접발’ 이렇게 하는데 ‘종지발’ 가진 말이 발이 이렇게 좁으니까 미끄러지지 않는데, 이만큼 큰 발 가진 것은 눈이 오나 뒤흔 때 미끄럼을 잘해. ‘종지발’은 동그란 것이 짚어. 이것보다 짚으니까 땅 폭폭 들어가서 미끄럽지 않는데 ‘대접발’은 넓고 평탄이어서 잘 미끄러져.)<오국현>

‘돌발’은 『월인석보』(상:20)의 “四天王이 되습고, 돌발을 諸天이 바다”, 『두시언해』(초간본 7:8)의 “도라오매 몰바를 혼노라:歸來散馬蹄”에서 확인되는 어형으로, 방언형에서 문헌 어휘가 고스란히 확인되고 있다. ‘돌발’과 표준어형인 ‘말발’도 사전에 올라 있지 않다. 반면, ‘소의 발’을 뜻하는 ‘소발’ 또는 ‘쇠발’, ‘쇠족’은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다.

### 2.1.3.2. 종지발, 대접발

‘말발’은 예문 (7)에서 알 수 있듯이, 모양에 따라 ‘종지발’과 ‘대접발’로 나뉜다. ‘종지발’은 종지 모양으로 발이 둥그렇고 깊어서 붙은 명칭이고, ‘대접발’은 대접처럼 넓고 평평한 모양의 발을 말한다. 발의 모양을 그릇 모양에 비유해서 붙인 ‘종지발’과 ‘대접발’은 가시리에서 채록해 처음 학계에 보고하는 미등재 어휘다. ‘종지발’은 발 모양이 종지처럼 둥글고 깊어 ‘땅 푹푹 들어가서 넣끼리지’ 않는데, ‘대접발’은 ‘넓고 평탄이라부난 잘 넣끼리는’ 속성이 있다.

## 2.1.4. 말 부위 관련 어휘

### 2.1.4.1. 말레기, 말고기, 말코기

‘말레기, 말고기, 말코기’는 말의 고기인 ‘말고기’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방언형 ‘말레기’는 ‘말고기>말레기’ 또는 ‘ㅎ’음이 첨가되어 ‘말+ㅎ+고기>말코기’로 변화하였다. 『구급방언해』(하:59)의 ‘말고기’가 방언형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경우다.

- (8) **말코기**는 소금 엇어도 먹주. 한번 삶양 낫당 한번 또 삶으면은 고기가 짜주. **말레기** 팔월 구월 시월까지. 그때는 **말코기**가 제맛이고 그 전엔 제맛 잇인 게 엇어.(말고기는 소금 없어도 먹지. 한번 삶아서 놔두었다가 한번 또 삶으면 고기가 짜지. 말고기 팔월 구월 시월까지. 그때는 말고기가 제맛이고 그 전에는 제맛 잇는 게 없어.)<오국현>

예문 (8)을 보면, ‘말레기’는 두 번만 삶으면 고기가 짜서, 소금 없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간이 되어 질리지 않는다고 한다. ‘말레기 낫당 시월에 섰다(말고기는 시월에 맛이 있다)’는 속설처럼 말고기는 가을철이 제맛이라고 한다.

### 2.1.4.2. 말가죽, 말커죽

‘말가죽’과 ‘말커죽’은 말의 가죽을 의미하는 표준어 ‘말가죽’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말’에 ‘가죽’ 또는 ‘커죽’이 합성된 어휘다. 『언해태산집요』에는 ‘말가죽’이 보인다. ‘말커죽’은 ‘ㅎ’음이 삽입되어 유품음화한 형태다.

- (9) ㄱ. 육지나 일본 사람은 **말가죽**이 채고엔 허는데 **말가죽**은 뭐 맨들면 질기극.  
(육지나 일본 사람은 말가죽이 최고라고 하는데 말가죽은 뭐 만들면 질기

고.)<오국현>

- 나. **말키죽**은 비 맞이나 뭐 허면은 못 쓰게 돼난 췌여병 빼들락거련에. 말가죽도 옛날은 그 보선을 만들양 가죽보선엔 허영 거 만들양 신어신디 발 제와근에 신지 못허영. 췌가죽이라사 말랑말랑행 발이 편안헌 거난.(말가죽은 비 맞으나 뭐 하면 못 쓰게 되니까 세어 보어서 뻗뻗해서. 말가죽도 옛날은 그 목화를 만들어서 가죽목화라고 해서 그것 만들어서 신었는데 발 끼어서 신지 못해서. 소가죽이라야 말랑말랑해서 발이 편안한 거니까.)<오국현>

예문 (9 ㄱ, ㄴ)을 보면, “말가죽은 뭐 멘들민 질기곡”, “옛날은 가죽보선엔 허영 만들양 신어신디 발 제와근에 신지 못허영”에서 확인되듯이 ‘말가죽’으로 ‘가죽보선’(목화)을 만들어 신었다. 그러나 ‘말가죽’은 (9 ㄴ)에서 보듯이 ‘췌가죽’보다는 뻗뻗해 활용도가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1.4.3. 검은지름, (말)검은지름, 술진베설, 큰베설/ㄴ는베설

‘검은지름/말검은지름, 술진베설, 큰베설’은 말의 큰창자를 말한다. ‘검은지름’, ‘말검은지름’의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으나 색깔이 거무스레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닌가 한다. ‘술진베설, 큰베설’은 ‘큰창자’를 말하고, ‘ㄴ는베설’은 가는 창자, 즉 ‘작은창자’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 (10) ㄱ. 고기에 딸린 게 아니라 내장 안네 **술진베설**보고 **검은지름**, **말검은지름**.  
 말처럼 **말검은지름** 먹어보젠 햅주.(고기에 딸린 게 아니라 내장 안에 큰창자보고 ‘검은지름’, ‘말검은지름’. 말처럼 큰창자 먹어보려고 하지.)<고창효>
- 나. **검은지름** 다 ㄴ췌 갈르켄 허민 갈라줘볼곡. 따로 풀 디 잇이민 풀아볼곡. 저 말 **술진베설**. 거 **술진베설** ㄴ라는 **검은지름**.(큰창자 다 같이 가르겠다고 하면 갈라줘버리고. 따로 팔 데 있으면 팔아버리고. 저 말 큰창자. 거 ‘술진베설’보고는 ‘검은지름’.)<오국현>
- 다. 큰베설에 것 ㄴ라 **검은지름**엔. 돼지 잡으민 대창 혼번 먹게.(큰창자에 것보고 ‘검은지름’이라고. 돼지 잡으면 대창 한번 먹자.)<고창효>
- ㄷ. **검은지름**은 그냥 숲양 먹어부난 그건 베설이난에.(큰창자는 그냥 삶아서 먹어버리니까 그것은 창자니까.)<오국현>
- ㄹ. **ㄴ는베설** 헤끄만헌디 건 따론 이름은 안 지와.(작은창자 자그마한데

그것은 따로는 이름은 안 지어.)<오국현>

예문 (10)을 보면, ‘(뭍)검은지름’과 ‘술진베설’, ‘큰베설’은 표준어 ‘큰창자’를 가리키고, ‘ㄹ는베설’은 ‘작은창자’를 말한다. ‘큰창자’가 ‘검은지름’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예문 (10 口)을 보면 ‘작은창자’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술진베설’은 ‘술지+-ㄹ+ 베설’ 구성으로, ‘술지다’는 ‘살지다’ 또는 ‘굽다’의 뜻을 지닌 방언형으로, 여기에서는 두께가 굽은 창자의 의미로 쓰였다. ‘베설’은 『월인석보』(21:43)의 “쫓구리 토빈거서 비술홀 쉼혀며”와 『월인석보』(23:87)의 “긴 모드로 모매 박고 비술홀 지지더라.” 등의 ‘비술’이 제주도 방언 ‘베설’로 남아 있다. ‘검은지름’은 예문 (10 ㄱ)의 “뭍추럼 뭍검은지름 먹어보젠 험주.”에서 알 수 있듯이 ‘검은지름’은 말을 추럼했을 때 선호하는 부위 가운데 하나이다. ‘뭍은 간광 검은지름 방 잡나(말은 간과 큰창자 봐서 잡는다)’<sup>11)</sup>이라는 속담을 통해서도 ‘검은지름’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 2.1.4.3. 뭍지름

‘뭍지름’은 말의 지방 조직에서 얻은 기름으로, 표준어 ‘말기름’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한자어로는 ‘마지(馬脂)’라고 한다.

- (11) ㄱ. 뭍지름 해근에 덴 디도 불르고.(말기름 해서 덴 데도 바르고)<고창효>  
 ㄴ. 뭍지름은 저 배때기 지경 술진 디 있는 디서 허영현 것이 뭍지름이난. 그거 흔 조각 허여당 낫당 아픈 디도 불르고, 헤어진 디도 불르곡. 거 썩지 아녀게 물리왓당 불에 구:나 어디 후라이판에 낡은에 허민 그 지름 잘잘 느리주. 듯듯이 썩 기름 나가민 불르는 거주. 햇빛에 아녕 호술 그늘진 디 헤야 오고생이 몰르주. 벳디 허민 녹아분덴.(말기름은 저 배때기 지경 살진 데 있는 데서 하얀 것이 말기름이니까. 그거 한 조각 해다 봐뵈다가 아픈 데도 바르고, 헤진 데도 바르고. 저 썩지 않게 말뵈다가 불에 구우나 어디 프라이판에 넣어서 하면 그 기름 질질 내리지. 따뜻이 구워서 기름 나와가면 바르는 거지. 햇볕에 얹고 조금 그늘진 데 헤야 고스란히 마르지. 별에 하면 녹아버린다고.)<오국현>

11) 고재환(2013), 『개정증보판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334쪽.

예문 (11 ㄱ, ㄴ)을 보면, ‘물지름’은 텐 데나 상처난 부위에 바르면 좋다고 해서 가시리에서는 ‘물지름’을 상비약으로 사용했다. ‘물지름’은 배 부위의 흰 기름으로, 민간에서는 ‘물지름’을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상처 났을 때 불에 녹여서 발랐다.

#### 2.1.4.4. 툇간

‘툇간’은 말의 간을 말한다.

- (12) ㄱ. 나도 먹어봤는디 소간보다도 맛 좋아. 젊은 사름덜 **툇간** 먹주. 몽아지 잡아먹게. 몽아지 간 수왕수왕헌 게 들금들금헌 게 그게 혼 덩어리라 게.(나도 먹어봤는데 소간보다도 맛 좋아. 젊은 사람들 말간 먹지. 망아지 잡아먹자. 망아지 간 서걱서걱한 게 달콤달콤한 게 그게 한 덩어리야.)<고창효>
- ㄴ. **툇간** 수왕수왕헌 게 좋나 헛자 난 원래 생 거 안 먹은. **툇간** 먹거나 말거나 내불어.(말간 서걱서걱한 게 좋다고 헛자 난 원래 생 거 안 먹으니까. 말간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오국현>

예문 (12 ㄱ, ㄴ)에서 알 수 있듯이 ‘툇간’은 맛이 좋으면 간엽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다.

#### 2.1.4.5. 전각

‘전각’은 말 등의 네발짐승의 앞다리를 말한다. 보통 체보자들은 말을 도축했을 때 앞다리 명칭을 ‘전각’이라고 하였다.

- (13) ㄱ. 머리는 데가리. 앞다리 부분은 **전각**, 뒤에는 **후각**. 몸통은 여기 그 갈비 있는 쪽은 갈비. 뒤에는 엉덩이 신 쪽은 **비피**. 그 다음 풀리.(머리는 데가리. 앞다리 부분은 전각, 뒤에는 후각. 몸통은 여기 그 갈비 있는 쪽은 갈비. 뒤에는 엉덩이 있는 쪽은 ‘비피’. 그 다음 꼬리.)<오국현>
- ㄴ. 그 추렴할 때 잡으민 요 앞부분보고는 **전각**. 난 **전각** 고기 갈라켜라. 아메도 전각 고기가 맛있어. 비피 맛있어. 난 갈비 갈라줘. 뒷다리 **후각** **살**. 풀리 영 달린 건 **비피**.(그 추렴할 때 잡으면 요 앞부분보고는 전각. 난 전각 고기 가르겠어. 아마도 전각 고기가 맛있어. ‘비피’ 맛있어. 난 갈비 갈라줘. 뒷다리 후각살. 꼬리 이렇게 달린 것은 ‘비피’.)<고창효>

예문 (13 ㄱ, ㄴ)을 보면, ‘앞다리’라는 고유어를 쓰기도 하지만 보통은 한자어 ‘전각’을 쓴다. 『표준』에는 한자어 ‘전각(前脚)’이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다. 반면에 ‘전각’과 비슷한 ‘전지(前肢)’가 올림말로 올라 있다.

#### 2.1.4.6. 후각, 후각술

‘후각’은 뒷다리, ‘후각술’은 뒷다리 살을 뜻하는 방언형이다.

예문 (13 ㄱ, ㄴ)의 ‘앞다리’에 대응하는 ‘전각’이 『표준』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후각(後脚)은 올림말로 올라 있다. ‘후각’과 비슷한 ‘후지(後肢)’도 사전에 올라 있어 ‘전각’과 대비된다. ‘뒷다리의 살’은 ‘후각술’이라고 한다.

#### 2.1.4.7 비피

‘비피’는 ‘엉덩이 살’을 말한다.

예문 (13)에 의하면 “엉덩이 신 쪽은 비피”, “꼴리 영 달린 건 비피”에서 보듯 ‘비피’는 엉덩이쪽 부위의 살을 말한다.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의 ‘비피’는 ‘돼지 따위를 잡아서 베어난 불기짝 부분’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 ‘비피’는 지역에 따라서 ‘부피’ 형태로도 나타난다.

#### 2.1.4.8 북부기

‘북부기’는 ‘허파’를 가리키는 말이다. 형태를 달리하여 ‘북베기, 부에’ 등의 방언형으로도 출현한다.

(14) 북부기도 있고 허파 다 잇인디. 그거 누게 경 탐내게 사지 안허난.(허파도 있고, 허파 다 있는데. 그거 누구 그렇게 탐내게 사지 않으니까.)<오국현>

### 2.1.5. 기타

#### • ㄹ큰세

‘ㄹ큰세’는 ‘망아지가 태어나면서 가로로 입에 물고 나온 혀’라는 의미를 지닌 어휘다. 이 어휘는 ‘ㄹ큰+세’ 구성으로, ‘ㄹ큰<sup>12)</sup>’은 ‘가로’, ‘세’는 ‘혀[舌]’에 대

12) ‘ㄹ큰’은 ‘가로’의 뜻으로, ‘ㄹ큰툽(가로툽, 동가리툽), ㄹ큰웨(누울외), ㄹ큰질(지름길)’ 등에서 확인된다.

응하는 방언형이다. 지역에 따라서 ‘군세’<sup>13)</sup>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15) ㄱ. **ㄱ른세**가 있수다. 망아지 나면은 크게 약제로 써. 물 망아지 나오라근에 ㄱ들락ㄱ들락허당도 입에 물영 바근 거 보민 까망헌 간 닻은 거라. 요 만헌 거. 약 봉그젠 망아지 나난 디 역불 봉그젠 간 사름덜 있어. 약제 웬덴. 그런 거 허면은 아이덜 정기[정끼]에도 좋고 역은 사름도 간질 허는 디 좋덴 허고.(‘ㄱ른세’가 있습니다. 망아지 나면 크게 약제로 써. 말 망아지 나와서 ㄱ들락ㄱ들락하다가도 입에 물어서 뺨은 것 보면 까만 간 같은 거야. 요만한 거. 약 주우려고 망아지 낳았던 데 부러 주우려고 간 사름덜 있어. 약제된다고. 그런 것 하면 아이들 경기에도 좋고 나이든 사람도 간질하는 데 좋다고 하고.)<고창효>

ㄴ. 저 **ㄱ른세**. 새끼 나나민. 가마귀가 먼저 봉가먹어분덴. 물 새끼 나난 디 가마귀 가기 전에 그걸 ㄱ어야 약을 ㄱ먹어. 어린아이덜 정기에도 슬앙 맥이고 뭐에도 헌덴 허영. **ㄱ른세**. 거 푹 세만이 허영 조랑허게 붙어 신디 어디사 붙어 신지 몰라. **ㄱ른세**엔 헐 거 물 새끼가 소꿉에서 그걸 물어 있어난 모냥이라.(‘ㄱ른세’. 새끼 나나면. 까마귀가 먼저 주워 먹어버린다고. 말 새끼 낳았던 데 까마귀 가기 전에 그걸 주워야 약을 ㄱ먹어. 어린아이들 경기에도 살라 먹이고 뭐에도 한다고 해서. ‘ㄱ른세’. 거 푹 허만큼 해서 조랑허게 붙어 있는데 어데야 붙어 있는지 몰라. ‘ㄱ른세’라고 한 거 말 새끼가 속에서 그걸 물어 있었던 모양이야.)<오국현>

ㄷ. **ㄱ른세**만 물리왕 놔뒀당 불태우민 재가 뒤난 그거 허영은에 아이 맥이 주.(‘ㄱ른세’만 말려서 놔두었다가 불태우면 재가 되니까 그거 해서 아이 먹이지.)<오국현>

예문 (15)에 의하면, ‘ㄱ른세’는 아이들 경기나 어른들 간질 상비약으로 쓰는 귀한 약재였다. 말려 두었다가 불에 살라서 재를 먹었다. 망아지가 세상에 나와서 “입에서 바근 거 보민 까망헌 간 닻은 거”, “ㄱ른세, 거 푹 세만이 허영”에서 보듯이, ‘ㄱ른세’는 망아지 입에서 뺨어낸 혀 크기의 검은 물체다. 약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망아지 새끼 낳았던 곳으로 주우러 다니기도 하는데, “가마귀가 먼저 봉가먹어분덴”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른세’는 까마귀들이 먼저 주

13) 강영봉(2015), 『제주어 제주사람 제주문화 이야기』, 도서출판 각, 364쪽. 강영봉은 이 글에서 ‘군세’를 ‘군 혀’로 풀이하였다.

위턱어버린다고 한다. 이 ‘ㄱ른세’도 이 글을 통해 처음 학계에 보고되는 방언형이다.

위에서 논의한 어휘를 범주별로 나누어 뜻풀이를 보이면 <표 1>과 같다.

<표 1> 논의 어휘와 뜻풀이

범주	논의 어휘	뜻풀이	
털	멘털, 맹털, 앞머리털	말의 이마에 난 털.	
	갈기, 물갈기, 갈귀	갈기. 말 따위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나는 긴 털. 말갈기.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나는 긴 털.	
	물총, 물총지, 물풀랑지, (물)풀랭이	말총. 말의 꼬리털. 말꼬리.	
뼈	말짱, 말뼈	말의 뼈.	
	접	주걱뼈. 주걱처럼 생긴, 마소의 어긋죽지의 뼈.	
발	말발. 말의 발.		
	말발	종지발	둥글면서도 좁고 깊은 종지 모양의 말의 발.
		대접발	모양이 대접처럼 넓고 편편한 말의 발.
부위		말고기.	
		말가죽, 물가죽	말가죽.
	말깨기 말고기 말코기	검은지름, 물검은지름, 슬진베설, 큰베설	말의 큰창자. 큰창자.
		ㄱ는베설	작은창자.
		말지름	말기름. 말의 기름.
		말간	말간. 말의 간.
		전각	네발짐승의 앞다리. 또는 도축했을 때 그 부위를 이르는 말.

		후각	네발짐승의 뒷다리. 또는 도축했을 때 그 부위를 이르는 말.
		비피	말이나 소 등 네발짐승의 엉덩이 부분. 또는 그 살.
		북부기	허파.
기타	ㄹ른세	망아지가 태어나면서 가로로 입에 물고 나온 물건. 혀 모양이어서 붙은 명칭.	

## 2.2. 사전에서의 처리

사전에서는 논의 대상 어휘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국어사전, 방언사전, 고어사전 순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2.2.1. 국어사전

논의 어휘 33개 가운데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방언형(이형태 포함)은 ‘갈기, 물총, 접, 전각, 후각, 비피’ 등 6개다. 나머지 ‘멘털(맹털, 앞머리털), 물갈기, 물총지, 물꿀랑지, 물꿀랭이, 물팡(물빠), 물발(종지발, 대접발), 물케기(물고기, 물코기), 물가죽(물커죽), 검은지름(물검은지름, 솔진베설, 큰베설), ㄹ른베설, 물지름, 물간, 비피, 북부기, ㄹ른세’ 등 27개 어휘는 사전에 올림말로 등재되지 않은 새 어휘다.

이 가운데 ‘갈기’와 ‘물총’은 문헌 어휘와 동일하여 오래전부터 써온 어휘이고, ‘접’과 ‘비피’는 방언형이 사전에 올라 있는 경우다. ‘전각’과 ‘후각’은 네발짐승의 ‘앞다리’와 ‘뒷다리’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표준어와 그 형태가 같다. ‘전각’과 ‘후각’은 말을 도축했을 때 부위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 2>는 논의 어휘 33개의 국어사전 등재 여부, 그리고 해당 방언에 대한 표준어형을 제시하여 목록화한 것이다. ‘검은지름’에 해당하는 표준어 ‘큰창자’와 ‘ㄹ른베설’에 대응하는 표준어 ‘작은창자’는 어형이 너무 달라 공란으로 처리하였다.

<표 2> 논의 어휘와 사전 속의 방언 및 표준어 어휘

논의 대상 어휘	『국어』	『우리』	『조선』	『표준』	『한국』
멘털 맹털 앞머리털					
들갈기/갈퀴	갈기 말갈기	갈기 말갈기	갈기 말갈기	갈기 말갈기.	갈기
말총 말총지 말끌랑지 말끌랭이	말총	말총 말꼬리	말총 말꼬리	말총	말총
말짱 말뻘		말뻘			
접		접		접	접
들발	들발		말발		
종지발					
대접발					
말깨기 말고기 말코기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말가죽 말커죽		말가죽	말가죽	말가죽	말가죽
검은지름 들검은지름 술진베설 큰베설					
ㄱ는베설					
말지름	말지름	말지름		말지름	
들간					
전각	전각	전각	전각		전각
후각/후각술	후각	후각	후각	후각	후각
비피					
북부기					북부기
ㄱ른세					

논의 결과, 사전의 올림말 선정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와 말은 쓰임새가 많은 동물이다. 소가 전국의 농촌에서 길렀던 대표적인 가축이었다고 한다면 말은 쓰임새가 많았지만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널리 애용되었던 가축이다. 소의 부분 명칭과 달리 말 관련 부분 명칭이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문화적인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말 관련 부분 명칭을 소 부분 명칭과 대비하여 표준어형인 올림말을 비교해보면 이런 유추가 가능하다.

논의 어휘 가운데 ‘말총’과 같은 개념의 방언형 ‘말꼴랑지’와 ‘말꼴랭이’는 표준어 ‘말꼬리’에 대응된다. 그러나 ‘말꼬리’는 『우리』와 『조선』에만 올림말로 올라 있고, 『국어』, 『표준』, 『한국』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에 ‘쇠꼬리’는 모든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다. ‘말짱/말뺨’에 대응하는 ‘말뺨’은 『우리』에 올라 있고, ‘쇠뺨, 소뺨’은 『표준』에만 올라 있는 등 형평에 어긋난 경우가 보인다.

‘말발’은 고어사전에 올라 있다. 그러나 ‘말발’에 대응하는 표준어 ‘말발’은 『조선』에만 올라 있고, 나머지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다. 반면에 ‘쇠발’은 『국어』, 『표준』, 『한국』에 올림말로 등재되어 있다. ‘쇠기름’은 모든 사전에 올라 있으나 ‘말기름’은 『조선』과 『한국』에는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다. ‘쇠간’은 『조선』을 제외한 모든 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으나 ‘말간’은 어느 사전에 전혀 등재되지 않았다. 논의 어휘에 따른 말과 소 관련 표준어 올림말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논의 어휘에 따른 말과 소 관련 표준어 어휘 비교

논의 어휘	『국어』	『우리』	『조선』	『표준』	『한국』
말꼴랑지		말꼬리	말꼬리		말꼬리
말꼴랭이	쇠꼬리	쇠꼬리	소꼬리	쇠꼬리	
말짱		말뺨			
말뺨				쇠뺨/소뺨	
말발	말발		말발		
	쇠발			쇠발	쇠발
말게기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말고기	쇠고기	쇠고기	소고기	쇠고기/소고기	쇠고기/소고기
말코기					
말가죽		말가죽	말가죽	말가죽	말가죽

말커죽	쇠가죽	쇠가죽	소가죽	쇠가죽/소가죽	쇠가죽/소가죽
말지름	말기름	말기름		말기름	
	쇠기름	쇠기름/소가기름	소가기름	쇠기름/소가기름	쇠기름/소가기름
말간					
	쇠간	쇠간/소간		쇠간/소간	쇠간

사전의 뜻을풀이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어휘도 있다, ‘말총’과 ‘총’이 대표적인데, 사전의 뜻을풀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말총>

- 『국어』: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 마미(馬尾)
- 『우리』: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한]마미
- 『조선』: 말총: 말총
- 『표준』: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마미(馬尾)
- 『한국』: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마미(馬尾)

위 내용을 보면, 사전마다 ‘말총’의 뜻을풀이를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2.1.1.3.의 해설에서 보듯이 ‘말총’은 ‘말의 꼬리털’이다. 이는 한자어 ‘마미(馬尾)’와 제주도방언의 구술 예문 (1ㄴ)의 “갈기. 물갈기. 물꼴랑지 물총지. 귀 양 설미 양쪽의 머리털, 물 앞머리털, 그 머리털이 멍털이라.”에서 보듯이, ‘갈기’와 ‘말총’은 다른 털임을 알 수 있다. 『표준』 등의 국어사전에는 ‘총’을 ‘말총’과 같은 개념으로 올림말에 올려 있다. ‘말총’은 ‘말총지’로도 실현되는데, 이때 ‘총’과 ‘총지’는 ‘꼬리털’의 방언형이다. 따라서 ‘총’은 ‘말의 갈기와 꼬리의 털’이 아니라 ‘말 따위의 꼬리 털’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갈기’와 ‘말갈기’의 뜻을풀이를 보더라도 ‘갈기’와 ‘말총’의 뜻풀이는 달리 해야 한다.

<갈기>

- 『국어』: 말이나 사자 같은 짐승의 목덜미에 난 긴 털.
- 『우리』: 말, 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 갈기털
- 『조선』: 말, 사자 같은 짐승의 목덜미에 난 긴 털.=갈기털.

『표준』: 말이나 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갈기털.

『한국』: 말, 사자 따위 짐승의 목덜미에 난 긴 털.

<말갈기>

『국어』: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난 털. 마렵(馬鬣)

『우리』: 말의 갈기. 곧, 말의 목덜미에서 등에까지 난 긴 털. 마렵.

『조선』: 말의 목덜미에서 등에까지 난 긴 털.

『표준』: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나는 긴 털.=마렵[馬鬣].

『한국』: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난 긴 털.

‘갈기’는 말이나 사자 등 동물의 목덜미에서 등에까지 난 털을 가리키고, ‘말갈기’는 ‘말의 목덜미에서 등까지 난 긴 털’이기 때문에 ‘갈기’와 ‘말총’은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2.2.2. 방언사전

이런 문제는 방언사전에서도 그대로 답습해 보여준다. 논의 어휘 33개 가운데 참고한 여섯 개 방언사전에 1개 이상 수록된 어휘는 ‘갈기, 말갈기, 말총, 말꿀랭이, 검은지름, 큰베설, 접, 물레기, 물가죽, 전각, 후각, 비피, 북부기’ 등 12개다. ‘멘털(맹털), 갈귀, 물총지, 물팡, 물빼, 물발, 종지발, 대접발, ㄴ는베설, 물지름, 물간, ㄱ른세’ 등 21개 어휘는 이번에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하는 어휘들이다. 방언사전에 올림말로 올라있는 말 부분 명칭을 보이면 <표 4>와 같다.

<표 4> 방언사전 속의 말 부분 명칭

논의 어휘	석주명	박용후	현평효	현평효 외 1	송상조	현평효 외 2
멘털·맹털				*맹털	*맹털	*맹털
(말)갈기 갈귀			갈기	갈기 말갈기	말갈기	갈기 말갈기
말총 말총지 말꿀랭지				말총	말총 말꿀랭이 말총리	말총 말꿀랭이

물꼴랭이						
물짱/물빼						
접	접			접	접	접
물발						
중지발						
대접발						
물궤기 물고기 물코기		물궤기			물궤기	물궤기
물가족 물커족					물가족	물가족
검은지름 물검은지름 술진베설 큰베설						검은지름
ㄱ는베설						
물지름						
물간						
전각					전각	
후각/후각술					후각	
비피					*비피	*비피, 부피
복부기				복부기 부에	복부기 부에 복부지	복부기 부에 복베기
ㄱ른세						

<표 4>를 보면, 말 부분 명칭이 방언사전에 처음 보이는 것은 석주명에서다. 석주명에는 말 부분 명칭으로 ‘접’이 올라 있고, 박용후에는 ‘물궤기’, 현평효에는 ‘갈기’가 올라 있다. 말 부분 명칭이 사전에 본격적으로 올림말로 오른 것은 현평효 외 1부터다. 현평효 외 1은 제주도청에서 사전을 편찬하면서 민속학자들을 조사 집필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말 관련 어휘가 새롭게 조사되어 올림말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뒤이어 나온 송상조와 현평효 2에서도 말 부분 명칭이 추가되었다. 송상조와 현평효 2의 말 부분 명칭 관련 올림말과 뜻풀이를 보이면 <표 5>와 같다.

<표 5> 송상조와 현평효 외 2 올림말과 뜻풀이 비교

논의 어휘	올림말		뜻풀이
멘털/맹털	송상조	*맹털	갓난아기의 머리 정수리에 난 털. 이 털은 어느 정도 자라더라도 모두 깎아 버리지 않고 조금 남겨 두기도 함
	현평효 외 2	*맹털	정수리에 난 털. 아기의 머리털을 처음으로 깎을 때에 모두 깎지 않고 남겨 두는 정수리의 털
갈기(갈귀), 들갈기	송상조	들갈기	말갈기
	현평효 외 2	갈기 들갈기	말·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 말갈기
말총 말총지 말꼴랑지 말꼴랭이	송상조	말총 말총 말꼴랭이 말총리	말꼬리나 말갈기에 난 긴 털
	현평효 외 2	말총 말꼴랭이	말총 말의 꼬리
접	송상조	접	마소의 어깨의 주걱뼈
	현평효 외 2	접	주걱뼈
말레기 말고기 말코기	송상조	말레기	말고기
	현평효 외	말레기	말고기
말가죽 말커죽	송상조	말가죽	말가죽
	현평효 외	말가죽	말가죽
검은지름 말검은지름 술진베설 큰베설	송상조		
	현평효 외 2	검은지름	말의 작은창자
전각	송상조	전각	짐승의 앞다리
	현평효 외 2		
후각(술)	송상조	후각	짐승의 뒷다리

	현평효 외 2		
비피	송상조	*비피	소나 돼지의 허리 아랫부분, 곧 엉덩이를 가리키는 말
	현평효 외 2	*비피 부피	돼지 따위를 잡아서 배어 낸 볼기짜 부분
복부기	송상조	복부기 부에 복부지	허파, 폐장, 부아
	현평효 외 2	복부기 부에 복배기	허파(肺腑)

<표 5>를 보면, 방언사전에서도 뜻풀이가 다른 경우가 보인다.<sup>14)</sup>

‘맹털’은 ‘말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털’을 가리키는 어휘인데 반하여 송상조와 현평효 외 2의 ‘\*맹털’은 ‘아기의 머리를 처음 자를 때 정수리에 남겨둔 털’의 의미다. 따라서 두 어휘는 형태가 같지만 의미는 다른 별개의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말총’은 송상조에서 『표준』 등의 국어사전 뜻풀이를 원용하여 ‘말꼬리나 말갈기에 난 긴털’로 풀이하고 있으나 현평효 외 2에서는 표준어 ‘말총’만을 제시하고 있다.

‘접’의 뜻풀이는 제각각이다. ‘접’을 가장 먼저 소개한 석주명에서는 ‘牛馬의 어깨’라고 풀이하고 있고, 송상조에서는 ‘마소의 어깨의 주걱뼈’, ‘현평효 외 2’에서는 표준어 ‘주걱뼈’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의 ‘주걱뼈’가 ‘주걱처럼 생긴, 마소의 어깨죽지의 뼈’라고 한다면 석주명의 ‘우마의 어깨’와 송상조의 ‘마소의 어깨의 주걱뼈’는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걱뼈’는 언중들이 낯설어 하는 어휘인 만큼 뜻풀이를 ‘주걱뼈, 마소의 어깨죽지의 뼈’처럼 대응표준어와 어휘에 따른 뜻풀이를 동시에 밝혀주어 언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표의 빈칸은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어휘이고, \*표가 붙은 어휘는 말 관련 어휘로 조사된 어휘가 아니지만 형태가 같은 경우이다. \*표 어휘는 \*맹털처럼 말 관련 어휘와 무관한 어휘가 있는가 하면 \*비피처럼 말 관련 어휘에 적용할 수 있는 어휘도 있다.

‘검은지름’은 뜻풀이가 잘못된 경우다. 현평효 2에서는 ‘말의 작은창자’라고 되어 있지만 2.1.4.3.의 예문 (10 ㄱ, ㄴ)의 “내장 안네 슬진베설보고 검은지름”이라는 용례에서 확인되듯이 ‘검은지름’과 ‘슬진베설’은 나란히 큰창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비피’의 경우는, 이 글에서는 말의 꼬리 부근의 부위 명칭인데 반하여 송상조와 현평효 2는 돼지고기 등의 부위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비피’의 뜻풀이 보강이 필요하다.

### 2.2.3. 고어사전

고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는 어휘는 ‘갈기, 밀총, 밀발, 베설’ 등 4개 어휘다. 이 가운데 ‘갈기’와 ‘밀총’, ‘베설’의 고어 ‘비술’은 유창돈, 『우리』 4, 남광우에 올라 있으나 ‘밀발’은 유창돈과 남광우에서 확인된다.

이처럼 제주도 방언에 말 관련 문헌 어휘가 남아 있는 것은 제주도가 예로부터 말 주산지로, 말 관련 문화가 다른 지역보다 다각적으로 발달했다는 증거다.

## 3. 결론

이 글에서는 말 관련 부분 명칭 가운데 특이 어휘 33개를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33개 어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어휘 가운데 특이어형으로, 현지 조사에서 수집한 용례와 문헌 자료, 사전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어휘 의미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논의 어휘는 국어사전과 방언사전, 고어사전의 수록 어휘 등과 비교하여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논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 대상으로 삼은 어휘 33개 가운데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등재된 어휘는 ‘갈기, 밀총, 접, 전각, 후각, 비피’ 등 6개 어휘에 불과하였다. 논의 대상 어휘 가운데 국어사전에 대응하는 표준어형이 올림말로 올라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사전에 따라 올림말 등재 여부가 다른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올림말 선

정 기준이 모호했다는 증거다. 이는 그동안 말 관련 어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둘째, 말 부분 명칭은 방언사전에도 수록되지 않은 어휘가 많았다. 33개 어휘 중 방언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는 어휘는 12개이고, 미등재 어휘는 ‘멘털(멘탈), 갈귀, 물총지, 물짱, 물빠, 물발, 종지발, 대접발, ㄹ는베설, 물지름, 물간, ㄹ른세’ 등 21개 어휘다. 이들 어휘는 말 문화 관련 어휘를 풍부하게 해주는 귀중한 자료인데, 이들 어휘는 이 논문의 큰 수확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전 작업을 위해서는 문헌자료와 연구 자료의 확인 못지않게 현지 조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사전 등재 어휘 가운데는 소 부위 명칭보다 말 부위 명칭이 적었다. 예를 들어 ‘쇠기름’은 모든 사전에 올라 있으나 ‘말기름’은 『조선』과 『한국』에는 올라 있지 않았다. ‘쇠간’은 『조선』을 제외한 모든 국어사전에 올림말로 올라 있으나 ‘말간’은 어느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다.

말 부분 명칭이 소 부분 명칭보다 올림말 수가 적은 것은 소는 국민들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되는 가축이지만 말은 제주 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활용되었던 가축이었다는 요인도 작용하였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말 관련 어휘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올림말 어휘 가운데는 뜻풀이 보완이 필요한 어휘도 있었다. 예컨대 ‘물총(말총)’은 『표준』 등에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풀이하고 있으나 문헌 어휘와 현지 조사 용례 등을 보면 ‘말총’은 ‘말의 꼬리털’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제보자들이 말의 털을 ‘멘털/멩털([面]-), 갈기, 물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문헌 자료에 서 ‘물총’을 ‘마미(馬尾)’로 해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때 더욱 그렇다. 국어사전 뜻풀이가 방언사전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접’의 경우는 방언사전 뜻풀이가 달랐고, ‘검은지름’은 현형외 2에만 올림말로 올라 있는데, 뜻풀이를 ‘말의 작은창자’로 잘못 기술하고 있다.

다섯째, 고어사전의 ‘갈기, 물총, 물발, 비슬’은 방언형에서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어휘다. 제주도 방언이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을 이 논문에서도 다시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섯째, 국어 문화 발전과 정확한 어휘 정보 제공을 위하여 방언형의 올림말과 뜻풀이는 현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하여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올림말 추가와 뜻풀이 수정, 보완 작업은 올바른 국어 문화 창달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왜냐하면 방언 어휘는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나고 자란 언어 유산이기 때문이다.

## 주제어

제주도 방언, 말 부분 명칭, 국어사전, 올림말, 현지조사

## 참고문헌

- 강민수(1998), 『제주 말(馬) 연구』, 도서출판 열림문화.  
강민수(1999), 『제주조랑말』, 제주대학교 출판부.  
강영봉(1990), 「말이름(馬名)에 대한 관련」, 『한얼』 5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0. 42-51.  
강영봉(2015), 『제주어 제주사람 제주문화 이야기』, 도서출판 각.  
고광민(2004),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재환(2013), 『개정증보판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곽충구(1997), 「국어사전의 방언 표제어와 그 주석에 대한 검토」, 한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 93, 129-156.  
국립국어연구소(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순자(2006), 『와치와 바치』, 도서출판 각.  
김순자(2015), 「제주 말[馬] 문화 관련 어휘 연구 1」,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22, 367-406.  
남광우(1999/2008), 『고어사전』, 교학사.  
박경래(2012), 「국어사전과 방언의 수용」, 한국방언학회, 『방언학』 제16호, 2012, 351-381.  
박용후(1960/1988), 『제주방언연구』, 동원사/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북한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유창돈(1964/197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이기만(1971), 「濟州馬 馬색의 재래명칭 및 분포에 관한 연구」, 『학술지』 12호(자연과학편), 건국대학교 학술연구원, 893-908쪽.  
이기문(1985), 「중세국어의 몽고어 차용어」, 『어학연구』 21권 1호,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1-14.  
이기문(1991),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이희승(1961/198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장덕지(2007), 『제주마이야기』, 제주문화.

조선총독부(1920/1976), 『조선어사전』, 아세아문화사(영인본).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현평효·김종철·김영돈·강영봉·고광민·오창명(1995), 『제주어사전』, 제주도.

현평효·김종철·김영돈·강영봉·고광민·오창명·고재환·문순덕·강정식·김순자(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Ridel(1880), 『한불자전』, 국학자료원(영인본).

James S. Gale, B.A.(1897) 『한영자전』, 국학자료원(영인본).



■ Abstract

## Words Related to a Horse in Jeju Dialect: Focusing on the Names of its Body Parts

Kim, Soon-ja

This study is about the names of horse body parts in Jeju dialect and their meanings identified in local research, and in Korean dictionaries, dialect dictionaries, etc. unusual word forms were collected after studying words that describe horse body parts and that are used in horse cultures in Gasi-ri, Pyoseon-myeon, Seogwipo-si,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se were compared with those from Korean dictionaries, dialect dictionaries, and dictionaries of Old Korean and were then analyzed.

Only 6 words—galgi, molchong, jeop, jeongak, hugak, and bipi—can also be found in Korean dictionaries, while 21 words cannot be found in dialect dictionaries, which means that research on words related to horses has not been systematically conducted yet. This is why standard Korean word forms of some dialect ones are not in Korean dictionaries and some words need to be modified or complemented.

This study shows that conducting field surveys is as important as conducting literature research as pre-work. It is believed that the vocabulary and usage handled here could be used as precious materials for pre-work in the future.

### Keywords

Jeju dialect, names of horse body parts, Korean dictionary, entry word, field survey

접 수 일 : 2016년 8월 25일

심사기간 : 2016년 9월 1일~9월 21일

게재결정 : 2016년 9월 22일(편집회의)

K C I